



신청 딱 1곳... 추자해상풍력사업 재공모

24조원 투입 추자도 해상 400여㎢에 2.37GW 발전
한국중부발전 단독 응찰… 한 달 동안 재공모 절차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 추후 공모 신청 검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하는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공모에 들어갔지만 단 하나의 업체만 신청하며 재공모 수순을 밟게 됐다.

3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공모 1단계 평가(PQ)를 위한 서류접수 결과 한국중부발전만이 단독

으로 응찰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동안 재공모 절차가 추진된다.

국내 발전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은 한국전력의 자회사 중 하나로 이미 제주에서 100MW 규모의 한림 해상풍력을 운영하고 있다.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추자도 해상 일원을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하는 '공
공주도 2.0풍력개발사업'으로 개발
예정지는 서울특별시 면적 3분의2
에 해당하는 400여㎢ 해상으로, 총
사업비 최대 24조원, 발전 용량
2.37GW로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단
지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지난 7월 11일에 진행됐던 사전 설명회에는 국내외 2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에 비해 의외의 결과이다.

2019년부터 추자도 해상에 풍향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모
습을 보이던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도 이번 공모에 불참했고 추후 공모가 이뤄지면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기업들의 불참 이유는 1300억원 수준의 도민 이익공유금과 2GW가 넘는 추자 해상 풍력 발전량을 제주 전력 계통이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동안 재공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재공모에서도 한국중부발전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오소병기자

李대통령 제주 타운홀 미팅 추석 이후?

취임 100일 회견·유엔 총회 참석 등 9월 일정 짝짝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을 찾아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달 안에 제주에서도 타운홀 미팅이 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당초 제주 정치권에서 9월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이 대통령이 국내외 일정으로 추석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일부 지역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을 조만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만큼 민생경제에 집중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 부산 등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현안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토론한 바 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 방안을 놓고 대통령과 주민들 사이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장관들과 토론 중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타운홀 미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보시는 지방정부 책임자들도 우리 지역의 특성은 뭐고 정부와 협업해서(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구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의 경우 타운홀 미팅이 열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2공항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국내외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제주 타운을 미팅 시기가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 대통령 일정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11일), 유엔총회(23일) 참석 등이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오 지사 불법계엄 동조 주장 법적 대응” 도, 어제 긴급 브리핑… “제주 명예 심각히 훼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3 비상 계엄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3일 긴급 대변인 브리핑을 열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지사과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계엄 직후 도지사
가 행방불명 상태로 아무런 조치
도 취하지 않았고, 청사를 폐쇄하
는 등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적극
동조했다”는 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불법 계엄 당시 초기 대응 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했고 도민 안전 방안과 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

다”며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조치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에 응하지 않고 통상적인 공무원 야간 출입 수준을 유지했다”고 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불법 계엄에 적극 대응했음에도 일부에서 제주도가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것처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도지사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불법 계엄에 저항한 제주도민을 모독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쓰였던 '행정안전부 당직실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표현상의 문제가 있을 뿐 통상적인 야간 출입 절차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오소범기자



‘8월 반등’ 제주관광, 분위기 이어갈까

지난달 전년비 4.7% 증가한 134만여명 입도… 가을 성수기 ‘주목’

감소세를 보이던 제주 관광객이 8월 한달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추세가 가을 성수기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3일 제주도관광협회가 잠정 집계한 관광객 월별 입도 현황에 따르면 8월 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4만25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만2270명보다 4.7% 증가했다.

내국인 관광객이 110만19명, 외국인 관광객이 24만2485명으로 내

국인은 지난해보다 1.8%, 외국인은 19.9% 각각 늘었다. 하지만 8월 말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895만 2469명으로 여전히 전년도(934만 1358명)보다 4.2% 줄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관광객 1000만명 돌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9월 들어 감소세가 심상치 않아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지난 1일과 2일 모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4%

대의 감소세를 보였고 다음 달 추석 연휴가 1주일 정도여서 국내여행을 보류하고 해외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이달에도 시행하고 제주여행주간을 통해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행사

대한민국가수협회
SINGER ASSOCIATION OF KOREA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1회 평화의섬 제주 도민을 위한 음악회

2025. 9. 21. 18:00 ~ 21:30

탐동 해변공연장

박 군 봉
(최창 박문환)

특별초대가수
성경(까치밥) (김자경)

김 영 중
(니영나영예술단장)

MC. 복 주
(조복주)

강 미 현

김 태 하
(김창진)

이 해 연
(바이올린)

메 리
(외국인가수)

아 모 레
(외국인가수)

진 향
(진순애) 외 3명

서 란 영
(펜플루트)

김 호 남

헤 미
(신희숙)

진 진
(김근성)

최 영 옥
(최승혜)

서 우 중

성 진 아
(성순심)

이 용 우

김희야
(렐스애)

이청길

김애자

백영심

이연희
(씩소핀)

고은영
(한국무용)

양희수
(한국무용)

송민숙무용단
(고은영 외)

울소리난타
(고수연 외)

한수풀해너로레보존회
(현안열 외)

버들이아카데미북장구
(최은정 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최·주관

(사)한국가수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